

## EDMS와 기록물의 라이프사이클

김 익 한\*

1. 간극(間隙)을 넘어
2. 시작이 중요하다
3. 우선 거시적으로 기록물 라이프 사이클을 되짚어보자
4. 기록물 가치개념과 평가과정의 변화
5. 분류와 기술(記述)의 변화
6. EDMS의 실제와 기록물의 라이프 사이클
7. 간극은 이런 것이다
8. 무엇을 할 것인가?

### 1. 간극(間隙)을 넘어

2001년도 간행된 『KM & EDMS편람』을 보면 이미 우리 사회가 웹 환경

\* 명지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교수

주요논저 : 「기록관리체계의 개혁과 기록과학의 과제」 『정신문화연구』, 22-2, 1999 ;  
「전자정부와 과학적 기록관리-방법론적 응용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 2000 ;  
「1910년 전후 야마가타, 이토계의 대한정책 기조와 종교정책」 『한국사연구』, 114.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시대에 돌입하였음을 실감하게 된다. EDMS(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의 개념, 기능, 요소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리 되기 시작하였고, 또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와 B2B(Business to Business)의 연계를 포함하여 그 응용분야에 대한 논의도 맹렬한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2001년도의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1,000억대를 쉽게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의 맹렬함은 당연하다.<sup>2)</sup> 시장경제의 필요와 그 필요를 충족시킬 기술이 어쨌든 부합되어 있고 또 이들이 돈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있을 것은 다 있다는 이야기다. EDMS의 시대는 기록학계나 기록 관리계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미 대세이다.

기술적 발전을 이룬 이미징, 워크플로우, 검색엔진, 인증 및 보안, 데이터 표준 등의 영역이 전산분야를 중심으로 확립되어 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EDMS의 주요 기술요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내용적 영역을 앞지르고 있는 형국이다. 본래 전산이라는 것은 수단이다. 경영 영역을 전산의 수단으로 혁신할 수 있고, 기록관리 영역을 전산의 수단으로 혁신할 수 있으며, 또 조직이나 인사관리의 영역을 전산 수단으로 혁신할 수 있다. 하지만 전산분야의 맹렬함에 의해 내용 영역들이 모두 전산에 압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이다.

학문적으로도 당연히 경영학과 전산학이 만나야 하고 기록학과 전산학이 만나야 하며 행정학과 전산학이 만나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시스템도 개발될 것이고, 1,000억이 넘는다는 시장도 건전하게 발전해 갈 것이다. 만나야 한다는 필요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또 만나지 않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수단과 내용 사이의 간극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1 KM & EDMS 편람』, KM & EDMS 협의회, 2001, 참조.

여러 가지 이유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내용영역의 보수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기록학 및 기록관리계의 보수성이 주체적 입장에서 본 이유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주체적 입장에서의 이유는 해결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객관적 이유들, 혹은 타자적 이유들은 우리가 주장해서 세상이 혹은 타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뉘둘리가 되어 버리거나 지금과 같은 절대간극이 지속되면서 시장경제의 패자가 되어버리기 일췌이다.

주체적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연유가 있다. 전자기록물은 기록관리계의 논의의 내용과 방법을 바꾸게 할만한 충분한 성격을 갖고 있다. 웹 환경에서의 전자기록물은 종이기록물의 생산/관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체적 입장에서 방법론적 사고를 다시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 알다시피 웹 환경에서의 전자기록물은 일단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고<sup>3)</sup> 그 생산/관리방식도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반면, 종이기록물은 공간의 이동과 시간 순에 따른 절차적 사고에 입각해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차이가 방법론적 혁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체적 입장에서의 이유 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2. 시작이 중요하다

베어만(Bearman)과 헤드스트롬(Hedstrom)이 <전자기록물을 위한 기록물관리기관의 재창조(Reinventing Archives for Electronic Records: Alternative Service Delivery Options)>에서 전통적 기록관리의 방법론을 강조하는 기

---

3) 사실 '시공을 초월'한다는 표현은 과학적이지는 않다. 공간적 제약 없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사용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록관리 전문가들에게 냉소를 보내고 있는 것은 일면적으로 타당하다.<sup>4)</sup> 조직혁신의 방법론을 기록관리영역에 즉자적으로 대응시키고 있는 논법과 대안내용의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남기고 있지만 전통적 방법론의 재창조를 충분히 기도하지도 않은 채 ‘우리끼리만의 주장’을 되뇌는 현실에 일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근 10여년 동안 전자기록물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sup>5)</sup> 방향 전환을 위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대안체제를 위한 구안(具案)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물론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오동우(1990)는 이미 오래 전에 전산화에 관한 해외의 동향을 소개하고 전산화 추진시의 주의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sup>6)</sup> 필자(2000)는 기록관리의 방법론을 응용함으로써 전자기록물관리 및 전자정부의 운용에 핵심적 수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전자정부의 주무기관이 전산영역과 기록관리영역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다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총론적인 주장을 하였다.<sup>7)</sup> 또 최근 들어서는 전자기록물과 그 관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EDMS가 아니라 ERMS(Electronic Record Management System)가 됨으로써 비로소 정상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상민(2000)과 김재훈(2001)의 논의가 있었다.<sup>8)</sup>

4) David Bearman, Margaret Hedstrom, *Reinventing Archives for Electronic Records: Alternative Service Delivery Options*, American Archival Studies: Readings in Theory and Practice, SAA, 2000, 참조.

5) 논의의 흐름에 대해서는 Linda J. Henry, *Sobellenberg in Cyberspace*, American Archival Studies: Readings in Theory and Practice, SAA, 2000, pp. 569-574, 참조.

6) 오동우, 「기록물관리업무의 전산화 방향」 『국회도서관보』 27-2, 1990. 3, 참조.

7) 김익한, 「전자정부와 과학적 기록관리 - 방법론적 응용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 2000, 참조.

8) 이상민, 「전자기록물의 관리원칙: 전자정부의 초석」 『기록보존』 13, 정부기록보존소, 2000 ; 김재훈, 「전자정부추진과 기록관리 방안」, 목포대 대학원 기록

이재하(2000)는 전자기록물관리시스템의 모듈 구성의 대강을 밝히는 글을 발표하였고,<sup>9)</sup> 각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문원(2001)과 남성운·윤대현(2001)이 각각 전자기록물 제공의 문제와 데이터 변환 등을 포함하는 보존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sup>10)</sup> 특히 설문원은 전자기록물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록물관리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으며, 공공접근(public access)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이승억(2001)은 기록물연속체의 개념을 통해 전자기록물관리의 성격변화의 본질에 한 발 다가가기도 하였다.<sup>11)</sup>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설문원과 이승억의 문제제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전통적인 기록물관리의 방법론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결론도 기록물관리의 방법론이 전자기록물 분야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모아지는 경향이다. 내용적으로 아직 거시적, 총론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도 기록학계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거칠게 말해 구체성은 아직 획득하지 못한 채 기록물관리의 방법론적 유용성을 저편을 향해 주장만 해왔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 역시 앞서 말한 베어만과 헤드스트롬의 냉소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지만 아직 논의의 경과가 일천하다는 현실을 오히려 좋게 해석하자고 말하고 싶다. 좋게 해석한 것이 현실 속에서 의미있으려면 새로운 연구방향과 그러한 방향에서의 구체적 연구가 이를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시작이 중요하며 또 시작의 방향을 조타(操舵)해

---

관리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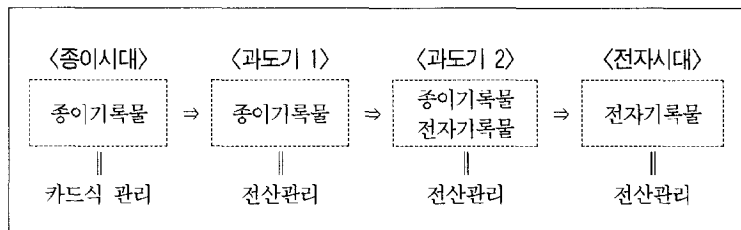
9) 이재하, 「정부기관의 전자문서관리방향」 『기록보존』 13, 2000, 참조.

10) 설문원, 「공개활성화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정책 연구」 『한국비블리아』 12-1, 2001. 6 ; 남성운, 윤대현,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한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 2001. 9, 참조.

11) 이승억, 「한국 공공분야 ‘기록보유(Recordkeeping)’ 체제 전망-‘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도적 의의와 특성」 『기록학연구』 4, 2001. 10, 참조.

가는 많은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림1〉 종이시대와 전자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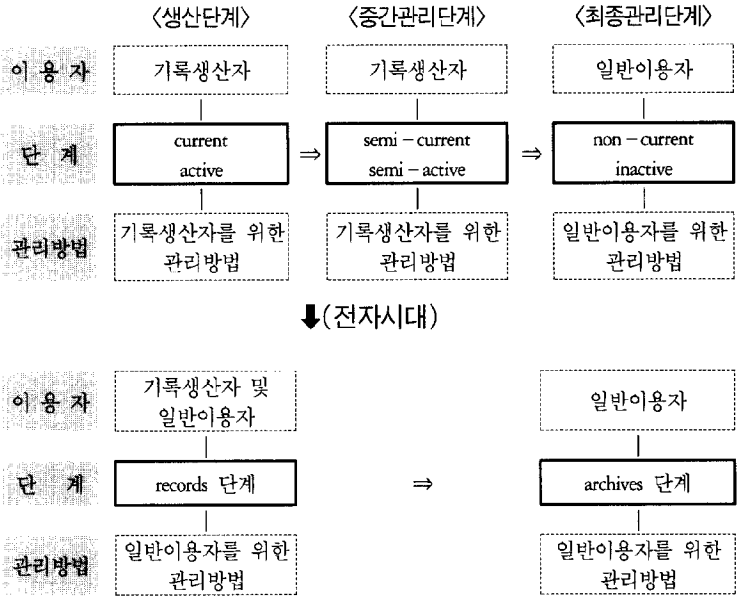
이렇게 시작하기를 제안한다. 전통적인 기록물관리의 방법론을 근원적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논의부터 하나씩 해가자. 다시 말해 〈그림1〉에서 말하는 종이시대나 종이기록물과 전자기록물이 혼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이 아니라 웹 환경에서 전자기록물만 존재하는 전자시대의 상황을 상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기록물관리의 방법론이 어떻게 근원적으로 재창조되어야 할 것인지를 하나씩 생각해가자는 것이다. 배어만과 헤드스트롬은 기록물관리전문가들에게 시스템디자이너가 될 것을 요구하였다. 물론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신 패러다임을 지각하고 나아가 신 패러다임에 상적(相適)한 방법론적 창조가 있을 때라는 전제에서이다.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경청해야할 지적이다.

### 3. 우선 거시적으로 기록물 라이프사이클을 되짚어보자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기록물의 라이프사이클이다. 전통적 기록물관리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라이프사이클에 토대를 두고 발전, 실천되어 왔기 때문이다. 기록물 라이프사이클은 우선 시간과 공간의 굴대를 전

제로 한다. 기록물이 생산되어 시간이 지나 그 효용과 성격이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관리의 장소가 변하고 방법도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조차 이미 시공을 초월하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경험하고 있다. 전자기록물이 이와 다를 이유가 없다.<sup>12)</sup>

〈그림2〉 기록물 라이프사이클론의 개념적 전이(轉移)



우선 거시적으로 보자. 기록물은 생산되어 그 생산된 장소에 그리고 생산한 사람 혹은 생산한 사람의 업무를 위해 존재했다. 생산단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active, current 등의 용어도 이러한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12) 라이프사이클 개념의 변화에 대한 논의의 단초는 이승익, 48~52쪽, 참조.

할 수 있다. 생산한 사람의 입장에서 아직 활용해야 하는 기록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격규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공간에 있다. 종이 등의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이 장소를 옮기려면 시간과 인력이 요구되었고 따라서 생산 당시에는 당연히 생산된 장소에서 생산한 사람이나 그 가까운 주변을 위해 복무하였다. <그림2>에 나타나는 것처럼 생산단계에서는 기록 생산자를 이용자로 보고 기록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록 생산자를 위한 관리방법을 구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웹 환경에서의 전자기록물은 전혀 사정이 다르다. 업무의 과정보다 비밀이 지켜져야 할 기록물을 제외하고는, 기록물은 생산단계에서 이미 모두 웹을 통해 순개념적으로는 전 인류에게 전달 가능하다. 생산단계에서 공간을 초월해버림으로써 이용자는 기록 생산자에서 일반이용자로 확대되며 따라서 사무실 내에서의 active, current는 올바른 용어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어버린 것이다. 생산단계의 기록물은 생산기관에서 생산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라이프사이클의 기본개념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이다. 간단히 말한다면 생산단계의 전자기록물은 생산 즉시 공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생산자와 전 인류를 위해 존재한다.<sup>13)</sup> 당연히 이용자가 달라지면 관리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록생산자에게 익숙한 목록구조가 일반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바뀔 것이고, 기록물 생산 내력을 잘 아는 생산자 기준의 분류도 일반

13) 물론 여기에서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려면 기록물 제공의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청구에 의한 기록물 공개제도조차도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기록물이 생산과 동시에 전 인류에게 제공된다는 실정은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은 생산과 동시에 공공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강조해두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웹 환경 아래서의 전자기록물관리는 이러한 제공제도를 전제로 논의될 때 비로소 완결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이용자의 관점에서 변화할 것이고, 결국 이러한 변화가 기록물관리방법론의 재창조를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기록물관리방법론에서는 중간관리단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알려진 미국의 레코드센터(records center)의 존재가 이를 말해준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기록물들을 사무실에 쌓아둘 수가 없었고 비용 절약 등을 위해 이를 통합하는 레코드센터가 설립되었던 것이다.<sup>14)</sup> semi - active, semi - current는 앞의 설명대로 생산한 사람이나 집단의 기준에서 보았기 때문에 타당한 용어로 사용될 수 있었다. 물론 이 때의 기록물도 생산한 사람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였다. 좀더 덧붙여서, 기록물들을 모아놓았을 때 전체적 시각에서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레코드센터에서의 평가(appraisal)도 기획되었다. 일정 부분을 한 곳에 모아놓고 어느 정도 시점이 경과했을 때 이를 평가해서 필요한 부분만 전문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하겠다는 전략이 설정되었다. 이것이 기록물 라이프사이클의 중간 경로가 되었던 것이다.

웹 환경에서의 전자기록물이 중간관리단계라는 라이프사이클의 한 경로를 거칠 필요가 있을까? 필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처럼 작은 규모에서는 특히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자료관 설립 대상기관, 예를 들어 환경부 같은 곳에 하나의 서버를 두고, 각 과나 팀에서 전자기록물로 성립된 것들을 성립과 동시에 서버에 저장한 후, 서버에 있는 것을 각 과나 팀에서 또 이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같은 대규모 조직이 아니라 일반 회사, 단체, 교회 등의 경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장소와 비용의 문제 등이 웹 환경에 의해 일

---

14) 레코드센터에서의 기록관리에 대해서는 오항녕 역, 『자료관의 기록관리』, 진리답구, 2001, 제3장, 참조.

거에 해결되어 버렸다. 웹 환경에서의 전자 기록물의 라이프사이클은 중간관리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관리단계로 이행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장소적 개념을 핵심적 요소로 한 논의이다. 종이기록의 물리적 이동을 전제로 한 레코드센터의 단계가 무의미해졌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레코드센터가 수행했던 기능 모두가 소멸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특히 과학적 분류와 평가의 기능은 각각 생산단계와 최종관리단계로 분화하여 수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웹 환경에서 중간관리단계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은 장소로서의 레코드센터의 소멸을 의미하지만, 중간관리단계에서 수행되었던 기능은 생산시, 혹은 아카이브즈 관리단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해소될 것이다. 이것이 웹 환경 전자기록물 라이프사이클의 응축성과 동적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즉 단계가 축소하면서 응축성을 띠게 됨과 동시에 시공을 초월한 관리행위의 방식에 의해 동적 성격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기록물의 최종관리단계는 기록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대상이었다. 기록물관리전문가들이 다수 모여 있는 곳이 최종관리단계를 관리하는 전문관리기관이었고 또 중요한 기록물들이 여러 기관에서 긴 시기를 거쳐 모임으로 인하여 관리의 복잡성이 불가피했기 때문이었다. 또 이 단계에 접어들면서 기록물은 생산한 사람이 아닌 공공에게 비로소 이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전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와는 다른 목적에서의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사실 *inactive, non-current*라는 용어는 이 단계에서는 부적절하다. 기록물을 활용하는 주체를 주어로 한 *active, current*는 이 단계에 오면서 그 주체를 달리하게 되고 따라서 *public usable*의 단계라고나 해야 할까? 어쨌든 기록물은 이 단계로 접어들면서 생산된 장소로부터 공간적으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함께 존재했던 폐기 대상 기록물들과 분리되어 새로운 구조 속에 존재하며, 또 생산자 집단이 아니라 공공을

위해 복무함으로써 이에 따른 관리방법상의 변화도 겪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웹 환경에서의 전자기록물도 생산단계와는 구별되는 라이프사이클의 최종 지점에 도달한다. 함께 생산되었지만 이미 폐기된 많은 기록물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대신 한 곳에 모여진 기록물들과의 사이에서 새로 형성된 관계구조 속에 존재하며 또 한편으로는 생산자에게 복무하는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라이프사이클상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장소의 이동과는 개념적으로 다르지만 이와 유사하게 다른 서버로 이동하게 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3단계 라이프사이클이 2단계로 압축되고, 기록물의 공간적 이동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며, 시공의 초월로 인해 초기 생산단계부터 기록물의 이용자로 공공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관리의 방법도 응축성과 동적 성격을 띠게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4. 기록물 가치 개념과 평가과정의 변화

전통적 가치론은 기록물 라이프사이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라이프사이클이 시간적 흐름을 전제로 하고 있고 가치론 역시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물론 이 역시 전자기록물의 차원에서는 달리 보아야 할 대목임에 틀림없다.

본디 기록물은 생산되자마자 바로 가치를 지닌다. 가치는 내재하는 것이므로 개념적으로는 기록물의 생산 시점에 바로 가치 역시 생산된다. 다만 기록물의 관리와 활용이 시간의 순차에 따라 이루어졌던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가치의 발현이 똑같이 시간의 순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1차적 가치와 2차적 가치가 구분될 수 있었다. 생산단계에서는 이용자로서 공공이 등장할 수 없었고 따라서 내재하는 가치 가운데 1차적 가치만이 발현되었으며, 최종관리단계에서는 이용자로서 공공이 등장함으로써 내재하는 가치 가운데 2차적 가치가 발현되었다는 이야기이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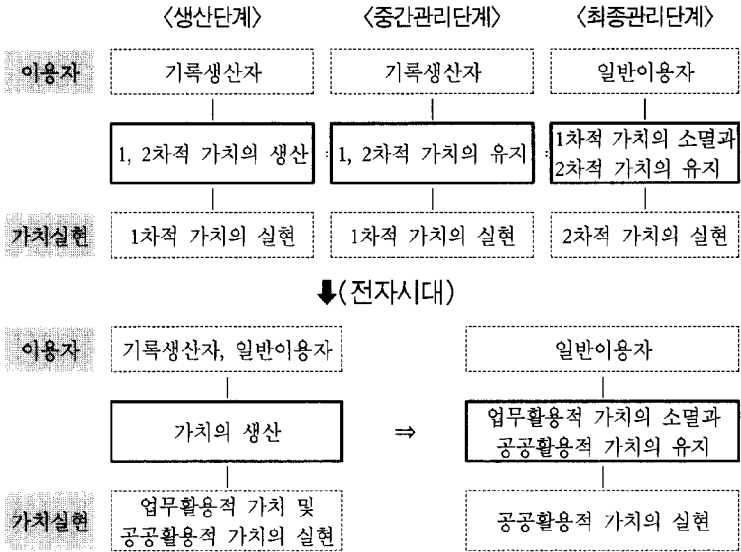
전자기록물은 그 시공의 초월성으로 인하여 생산 시에 생성되는 가치를 바로 그 시점부터 발현한다. 물론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기록물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2차적 가치의 발현이 유보된다는 것이 전제이기는 하다. 전자기록물들은 정보제공의 제도에 의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공과 함께 하게 된다.<sup>16)</sup> 이런 의미에서 1차적, 2차적 가치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된다. 기록물 생산자나 그 업무의 측면에서는 1차적이고 본래적일지 모르지만 공공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측면이 1차적이고 본래적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이다. 따라서 생산 시에 생성되고 바로 그 생산 시에 발현되는 기록물의 가치는 업무활용적 가치와 공공활용적 가치 혹은 업무가치와 공공가치로 구분함이 타당할 것이다. (가치 생산과 실현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림3> 참조)

시간의 순차에 따른 가치의 발현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과정과도 연동하였다. 1차적 가치가 발현되는 생산 및 중간관리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기록물을 생산하는 사람이 가치를 평가하였고 - 물론 기록물 처리일정(record schedule) 제도에 의해 일정한 변화를 겪기는 하지만 - 그들에게는 기록물이 지니는 공공에 대한 가치를 파악할 의무가 없었다.

15) 모두 아는 바대로 기록물 가치론은 셀렌버그에 의해 확립되었다. 기록물 가치론의 기본 개념을 마르크스의 상품 가치론과 비유하여 설명을 시도하고 있는 김익환, 「기록물평가이론과 기록물관리체제의 새로운 흐름」 『기록보존』11, 1998, 참조.

16)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이용자가 기록물의 공개를 청구하고 청구된 기록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정보제공제도는 청구 없이 생산 혹은 완결과 동시에 웹 상으로 기록물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제도이다.

〈그림3〉 기록물 가치의 개념적 전이(轉移)



그 의무는 전문관리기관 혹은 중간관리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가들에게 맡겨졌고 이들은 1차적 가치의 발현이 끝난 시점 - 생산시로부터 먼 훗날 - 에 평가에 관여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전자기록물이 생산 시부터 공공과 함께 하고, 그림으로써 공공활용적 가치를 발현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가치를 판단하는 평가의 행위는 생산 시부터 적극적으로 수행될 것이며 평가 행위의 결과에 의해 기록물의 생지살지(生之殺之)와 가치 발현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sup>17)</sup> 생산 시점 혹은

17) 당연히 전자기록물에 대한 평가 자체의 불요(不要)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공간의 문제, 코스트의 문제 등을 들어 전자기록물의 전체를 그대로 관리하면 된다는 의견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비용의 문제를 물질적인 측면에 한정해서 파악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엄청난 수량의 전자기록물을 여과 없이 대면함으로써 투여할 수밖에 없는 공공의 보이지 않는 비용 문

그와 가까운 시점에서 업무활용적 가치와 공공활용적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자기록물 평가의 핵심적 변화의 하나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록물관리전문가의 배치 문제 등과도 관련되는 복잡한 변화를 야기한다. 물론 분류와 기술작업의 동적 성격뿐만 아니라 평가의 동적 성격 역시 충분히 고려한 방법론적 구안이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더욱 복잡한 변화도 예상된다. 셀렌버그의 2차적 가치를 구성하는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의 측면을 고려하면 전자기록물의 평가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는 위에서 말한 공공활용적 가치의 평가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생산 및 이용환경의 변화에 따른 평가방식의 변화가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선 기록물의 생산 시점에서부터 일반이용자가 웹을 통해 다양한 기록물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특히 정보적 가치의 실현도가 극히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적 가치의 평가방법론이 전자시대에는 중요성을 더해갈 것인데, 이에 반해 전통적인 평가이론은 특히 증거적 가치의 평가를 둘러싸고 전개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sup>18)</sup> 조직 및 기능을 반영한 기록물의 구조체적 성격과는 별개로 개별 기록이 지니는 정보적 가치에까지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또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말해지는 가치의식의 다양화라는 변화가 이에 가세한다면 기록물관리전문가들에 의한 정보적 가치의 평가는 정말 지난하기 그지없는 작업이 되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정보적 가치를 지니는 전자 기록물을 모두 남긴다면, 아무리

---

제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평가는 전자기록관리의 핵심영역으로 남을 것이다.

18) 미국의 셀렌버그, 햄(G. Ham), 독일의 붐스(H. Booms)의 논의도 그렇고 베어만(D. Bearman)의 업무과정분석론 등도 정보적 가치를 함께 논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증거적 가치의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평가론의 전개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G. Ham,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SAA, 1993의 chapter 3을 참조.

정교하고 과학적인 분류와 기술에 의해 기록물이 보완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전자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정보적 가치의 평가를 둘러싼 실무적, 방법론적 고민은 전자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체로 이용자와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및 현대적 가치 척도 측정론 등의 방향을 합성하는 차원에서 방법론적 대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증거적 가치의 평가 역시 지난한 구안의 길이 예상된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행위와 기록물이 1대 1로 대응되는 종이 시대의 단순 구조에서, 다(多)대 1의 복합 구조로 전환됨으로써 전자시대의 증거적 가치 평가는 종이시대의 그것과는 자못 다를 수밖에 없다. 경향적으로는 미시평가보다는 거시평가의 차원으로, 기록물의 내용평가보다는 행위의 과정과 기능을 평가하는 방향에서 평가방법론이 구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행위의 과정에서 기록물 이외에 업무의 기능과 과정에 대해 기술(description)함으로써 증거적 가치를 별도로 생산하는 업무과정설계도 고려될 만하다.

결국 전자기록물의 가치는 생산 시에 생성됨과 동시에 발현되는 것이고, 따라서 시간의 순차에 따른 가치의 개념은 시간응축적 가치의 개념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가치를 인식하는 평가의 행위 역시 동적 성격을 고려한 다양한 차원으로 재창조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라이프사이클론의 전이와 더불어 기록물관리방법론상의 변화를 초래할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5. 분류와 기술(記述)의 변화

분류와 기술도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것

이야말로 전산영역을 다루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배워야할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물론 그렇지만 이 역시 전제가 있다. 전자기록물의 변화에 적응한 분류와 기술을 논했을 때, 그리고 변화된 라이프사이클 속에서의 새로운 작업 방식과 관련해서 논했을 때만이 현실적 의미를 지닐 것이라는 이야기다.

행위의 과정과 결과라는 기록물의 본질적 성격에 의해 출처와 원질서를 존중하는 분류의 원리가 긴 세월을 통해 정착되었다. 행위의 복원, 맥락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옳은 말이며 이는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분류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여러모로 재고해보아야 한다. 기존의 분류는 사무실 단위에서도, 전문기록물관리기관의 단위에서도 배열과 무관하지 않았다. 생산단계에서 업무프로세스에 맞추어 정리한 기록물을 단위업무와 기능에 따라 잘 분류해서 캐비닛에 그대로 배열하였고, 평가를 거쳐 이관된 기록물들도 출처와 원질서를 잘 유지시킨 상태로 전문 서고에 배열하였다. 전문관리기관에서는 매년 이관되는 기록물들을 분류체계에 맞추어 서가에 배열하기 위하여 서가단 마다 공간을 비워둬야 했고, 가끔씩은 고급 인력까지 전부 동원하여 밀어내기 배열변경에 땀을 흘리기도 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류된 상태로 기록물을 봄으로써 카드 혹은 전산화된 목록만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기록물의 깊이에 접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전자기록물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서버에 들어있는 전자기록물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컴퓨터로 보여주는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마치 며칠씩 걸려 전 직원이 배가를 바꾼 것과 똑같은 의미를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전자기록물에 여러 가지 분류의 원리를 적용시킨다고 해도 시스템만 잘 구축하면 되고 굳이 땀을 흘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



다. 정렬된 목록과 함께 전자기록물 역시 컴퓨터를 통해 즉시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전자기록물의 분류와 배열 문제는 종이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변화 분류의 기법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전자기록물과 종이기록물이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의 이유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용자에게 있다. 이용자가 조직, 기능, 업무과정 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알려 하지도 않는다든지, 도서관식 주제 분류에만 익숙하여 이를 원한다든지, 키워드만 입력하여 해당 정보를 찾기를 고집한다든지, 상황은 다양하기 마련이다. 사실 이 부분은 전통적인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다만 물리적으로 다양한 분류를 실현하기에는 효과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원리만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EDMS 가운데 이미 2개 이상의 분류체계를 탑재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은 이러한 이용자 수요에 이끌린 바 큰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전자기록물이 다변화 분류의 기법을 실현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더욱 복잡한 문제도 존재한다. 행위와 기록물과의 관계가 1대 1에서 다(多)대 1의 관계로 변화하면서 출처주의의 일정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통적 방법론에서 말하는 출처주의는 기록물을 생산하는 집단적 주체인 조직 그 자체가 출처의 실체였다. 따라서 조직(출처) - 기능과 업무행위(원질서)의 계층체계(hierarchy)가 분류의 기본이었다. 그러나 전자시대에는 특히 앞서 말한 다(多)대 1의 관계의 발생, 의사결정과정이나 업무집행과정 자체의 변화 등에 따라 단순 계층체계에 의한 분류가 점차 불가능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다출처 기록물이 발생함으로써 출처를 상위분류로 하는 분류방식이 적용 불가능해 지기도 하고, 조직의 변화무쌍한 운영 현상으로 인해 단일 출처라고 하

더라도 이를 상위분류로 하는 것이 거의 무의미해지는 등 지금과는 자못 다른 환경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호주의 ‘기능에 기초한 시리즈(function - based series)’를 중심으로 하는 분류의 개념이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위와 같은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19)</sup> 대체로 기능분류에 중심을 두고 그 상위에 기존의 레코드그룹보다 큰 매니지먼트 레코드그룹(management record group)을 두며, 기능에 따른 시리즈 하위에 필요에 따라 파일 분류를 두는 구조가 대안적 방법론으로 모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이러한 구상을 포함하여 기록물 사이의 관계망을 이용자 수요에 맞게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는 분류트리관리 모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시각화(visualization) 기법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론을 고려하여 다기능적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데에 점차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sup>20)</sup>

물론 이러한 복잡한 분류의 작업 역시 전자기록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행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기존의 라이프사이클과는 달리 전자기록물은 생산단계부터 공공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평균건 분류건 기술이건 간에 시간 순과 공간적 제약에 따른 라이프사이클이 해체되는 이상, 대부분의 관리행위는 생산시나 혹은 그 이전의 시기로 응축되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분류·기술 등의 작업에 시공을 초월하여 여러 주체들이 동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이들 사

19) 이승억이 요약한 「動的 記述」(A. Cunningham, *Dynamic Descriptions*, [http://www.naa.gov.au/recordkeeping/control/strategies/amsterdam\\_paper.html](http://www.naa.gov.au/recordkeeping/control/strategies/amsterdam_paper.html))에서 인용. 원전은 M. Wagland, R. Kelly, *The Series System : A Revolution in Archival Control, The Records Continuum : Ian Maclean and Australian Archives first fifty years*, Melbourne Ancora Press, 1994, pp. 131 - 149.

20) 시각화에 기초를 둔 인터페이스에 대한 문제제기는 웬디 피터슨, 「WEB을 통한 기록물 공개 열람 제공 : 축복인가 저주인가?」 『기록학연구』 4, 185~186쪽, 참조.

이의 환유(feedback)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특성 또한 주목받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응축성과 동적 성격은 표준화를 포함한 관리의 집권적 집행방식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에 넣어야 함은 물론이다.

기술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방식의 논의가 가능하지만 좀더 복잡하고 세밀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기술의 목적은 물론 이용자의 접근성을 최적화하는 데에 있다. 기존의 라이프사이클에 의하면, 생산단계에서는 생산자의 접근성을, 최종관리단계에서는 공공의 접근성을 최적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게 된다. 따라서 기술작성의 주체도 다를 뿐만 아니라 기술작성의 방법이나 요소도 다를 수 있었다. 또 전산화 이전의 시기에는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각각 수행되었던 기술의 행위들이 분절적인 성격을 띠어, 생산 시의 기술사항, 사무실 내 정리 시의 기술사항, 폐기 혹은 이관 시의 기술사항, 전문관리기관에서의 기술사항이 모두 따로 놀기 일쑤이었다. 사실 기존의 기술 개념이 전문관리기관에서의 기술에 집중되었던 반면 그 이전 단계에서 수행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전자기록물은 경우가 다르다. 라이프사이클의 변화에 따라 우선 생산 시부터 접근해 들어오는 공공 이용자에 적합해야함과 동시에 생산자의 활용에도 함께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 역시 최적화를 위해 새로운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기술의 기본 주체가 기록관리 전문가 뿐만 아니라 기록물생산자이기도 한 상황을 고려한 방법론이어야 할 것이다. 또 전문관리기관에서는 이전과 같이 다계층 기술 등의 원리를 적용하면서도 전자기록물과 함께 이관되어 들어오는 기록물 작성 기술 내용의 활용을 통한 기술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간 순에 따라 진행되면서 또 분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기록물 기

술 행위가 라이프사이클의 변화에 의해 연속성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sup>21)</sup>

평가뿐만 아니라 기술의 경우도 이와 같이 생산단계에서의 작업으로 응축됨과 동시에 동적으로 구조화되는 경향을 띤다. 이것이 라이프사이클의 변화와 연속체 개념에 의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론적 전망을 해보는 것이 유의미할까? 앞서 말한 응축의 경향은 생산단계에서 기록물생산자의 기술행위가 기록물관리 전문가의 기술행위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출발하게 한다. 물론 이는 전자기록물의 형식구조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 다수의 부분을 자동기술하게 하는 방법론과도 직결되어 있다. 또한 전자기록물 관리의 동적 성격에 주목하여 본다면, 메타데이터의 형성은 자동기술 영역, 생산자 기술 영역, 기록물관리 전문가의 기술 영역의 끊임없는 환유(feedback)를 전제로 진행되며, 이것을 구조화하는 최적의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기술의 최대의 과제가 될 것이다. 기존의 전거통제의 방법론이 다양하게 활용될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시리즈 시스템의 경우라면 기능 내지는 시리즈명, 기능의 맥락정보 등을 전자파일로 구축하는 방법 등이 구안 가능할 것이며, 기타 범용적으로 등장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일반 기술과는 다른 차원의 전자파일을 구축하고 이를 메타데이터 요소와 열결시키는 방법론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된다.<sup>22)</sup>

---

21) 연속체론에 대해서는 이승역, 「한국 공공분야 ‘기록보유(Recordkeeping)’ 체제 전망 -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도적 의의와 특성」, 44~48쪽, 참조.

22) 전거통제는 주로 저자 등의 요소에 적용하는 특수한 기술 방법론이다. 전거통제에 대해서는 설문원, 「ISAAR(CPF)의 구조와 적용」(한국기록학회 17회 월례 발표회 발표문), 2002. 4 및 「기록물을 위한 단체명 전거제에 연구」(한국기록관리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발표문), 2002. 4, 참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거통제의 방법론에 착안하여, 기술요소의 내용이 범용적으로 등장하는

물론 그렇다고 최종관리단계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평가나 기술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관리단계에서는 자료집이나 역사서술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위해 특별한 의미의 평가가 필요하며,<sup>23)</sup> 또 모여 있는 기록물들의 관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불요 기록물이 폐기된 이후의 영구기록물에 대한 다계층 기술과 같은 기술 행위의 상당부분은 웹 환경 전자 기록물의 관리에서도 최종관리단계의 기록물관리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질 것이다. 물론 이전의 기술내용을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을 새로이 창조하는 차원에서이기는 하지만, 또한 위에서 말한 전자파일의 구축 등은 설계나 기술 양 측면에서 기록물관리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록물 관리 행위가 경향적으로 응축성과 동적 성격을 강하게 띠어감으로써 결국 방법론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의 기록물관리 전문가들의 역할과 전망이 이러한 사실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순차에 따라 장소와 사람을 달리하면서 수행되어 왔던 기록물 관리의 행위는 이제 시공을 초월함으로써 동적인 양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기록물관리 전문가들 역시 시공을 초월하여 전자기록물관리에 관여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상당부분의 노력은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에 투여되고 또 상당부분은 전자기록물 및 정보의 관리행위에 투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전자기록물은 기록물의 라이프사이클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관리의 방법론을 변화시키며 또 기록물관리 전문가들의 배치와

---

경우 이를 전자파일과 같은 형태로 구축하여 기술해주고 기술요소와 전자파일 연동하게 하는 방법론적 응용의 측면이다.

23) 필자는 이를 기록물의 가치와 보존여부를 판정하는 일반적 의미의 평가(appraisal)와 구분하여 '목적성 평가'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역할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변화를 전제로 한 탐구가 계속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앞서 말한 간극을 하나씩 좁혀갈 수 있을 것이다.

## 6. EDMS의 실제와 기록물의 라이프사이클

약간의 논의의 진전을 위해 EDMS의 실체를 훑어보자. 쉽게 이야기 하기 좋은 명지대학교의 EDMS 'My iweb'을 예로 들 것이다. EDMS의 전형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굴지의 LG EDS가 개발하였고 꽤 많은 돈이 투자되었으므로 그 한 예로 분석하기에 전혀 무가치하지는 않을 것이다.<sup>24)</sup>

구체적인 이야기 이전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도 명색이 기록관리학과를 보유하고 전임교수와 수많은 대학원생을 거느리고 있는 명지대학교조차도 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기록학분야와 기록관리계를 고려에 넣지 않았다. 정말 믿어주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현상은 필자나 기록관리학과나 우리 대학원생들을 홀대해서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후한 대접과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DMS의 개발과 우리를 함께 연상하지 않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이다. 물론 폐를 쓰며 달려들어 못할 것은 없겠지만 미처 대안 준비도 제대로 되어있지 못한 '불청객'이 얻어낼 수 있는 성과는 이미 제한적이다. 마치 EDMS 개발 업체에서 불러주지도 않는데 준비도 덜된 기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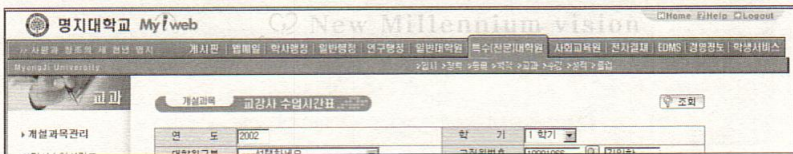
24) 시스템 사양 등 상세한 내용은 명지대학교 정보지원처, 『종합정보시스템(Myiweb) 및 교수 홈페이지 프로그램 사용자 지침서』, 명지대학교, 2002. 2, 참조. 보다 본격적인 수준의 EDMS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다. 전자기록물 관리의 대안적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외국 제품을 포함하여 보다 전형적인 EDMS를 조사·정리하고,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정부의 EDMS 표준을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다음의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학계가 먼저 달려든다고 간극이 줄어들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실을 하나씩 극복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My iweb의 메인 메뉴는 <그림4>와 같이 게시판, 웹메일, 학사행정, 일반행정, 연구행정, 대학원, 전자결재, EDMS, 경영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메인 메뉴의 구성에서 전자기록물 생산관리의 중요하고도 새로운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우선 라이프사이클과 직결되는 부분부터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전자기록물관리를 의미하는 광의의 EDMS는 기록물의 생산에 해당하는 전자결재와 관리에 해당하는 협의의 EDMS를 모두 포괄하는데 My iweb에서는 협의의 EDMS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 EDMS의 메인 메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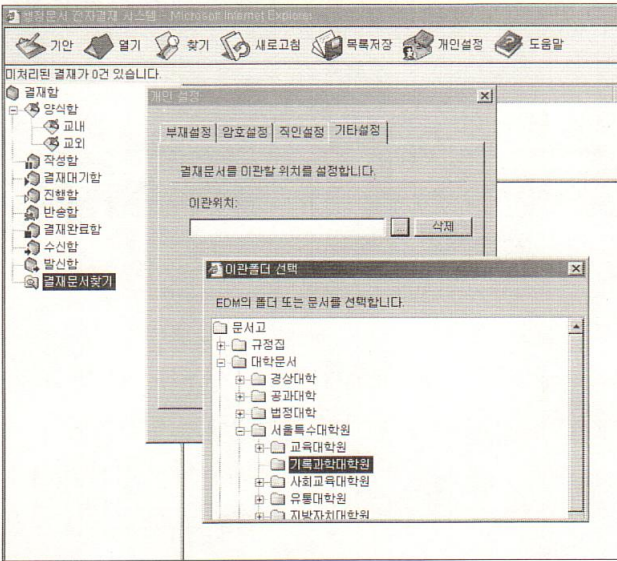


우선 My iweb의 전자결재 모듈과 EDMS 모듈의 연동구조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순화하여 이야기하면 전자결재는 양식함에 서기 안문, 업무연락, 협조전 등의 양식을 선택하고 내용을 작성하여(내용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작성함에 일시 보관된다) 결재선을 지정한 후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발송된 전자기록물은 발송자의 진행함과 결재자의 결재대기함에 들어갔다가 결재가 끝나면 발송자의 결재 완료함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종료된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결재완료함에 들어있는 전자기록

물의 위치관계와 전자기록물의 작성단계에서 설정하는 ‘결재정보설정’ 부분이다.(그림5) 참조) 자신의 결재완료함에 들어있는 전자기록물은 물론 서버에 위치하는데 이는 동시에 EDMS 모듈의 부서문서함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어있다. ‘결재정보설정’은 이관위치 지정, 공개형태, 보존 연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록물 생산 시에 수행하는 이 설정에 의해 전자기록물은 결재완료함/부서문서함에 있다가 일정 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EDMS 모듈 문서고의 지정 이관위치에 보존된다. 물론 보존연한이 지난 전자기록물은 자동적으로 서버에서 삭제된다.

〈그림5〉 전자결재 모듈과 EDMS의 연동구조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전자기록물의 시공을 초월한 응축된 라이프사이클의 과정이 자동적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그



대로 보여준다. 기록물 생산자가 아닌 시스템 접속자(물론 실제로는 교직원에 한하여 접속 아이디가 주어지지만 이는 정책의 문제이고 개념적으로는 웹 환경에서 공공에게 모두 열려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라도 결제가 끝난 전자기록물을 언제 어디서나 부서문서함을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며 또 일정기간이 경과한 전자기록물들은 문서고 홀더를 통해 활용 가능하다. 대부분은 시스템 설계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들이며 생산사의 '결제정보설정'이 이를 보완하는 정도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물론 전자기록물 라이프사이클의 응축성에 의해 그 실현이 보장된 것이다.

## 7. 간극은 이런 것이다

My iweb을 통해 라이프사이클의 응축성은 쉽게 알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시스템에 문제가 없을 리 없다. 우선 전자기록물관리 전문가의 역할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관리전문영역과 생산영역 사이의 동적 구조 역시 고려밖에 있는 단순한 시스템에 그치고 있다. 간극을 줄이지 못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크게 보아 분류, 기술, 평가 영역에 문제가 있음을 바로 감지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라이프사이클의 변화와 그에 따른 방법론적 변화를 전제로 하나씩 묘안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앞으로의 본격적인 과제 수행을 전제로 우선 간략하게나마 방향에 대해 언급하겠다.<sup>25)</sup>

---

25) 구체적 문제 지적에 앞서 언급한 이론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해둔다. 기본적으로는 필자의 지적 수준의 한계로 인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시스템 설계의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분석 대상 시스템이 전혀 전자기록물관리의 차원과는 동떨어진 것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나마 문제 지적을 시도하는 것은

평가는 앞서 말한 ‘결재정보설정’에서 보존연한을 정함으로써 수행된다. 물론 이 시스템에서의 평가는 전자기록물 생산자의 몫이며 아이TEM을 단위로 이루어진다. 아이TEM 단위의 평가는 기록물 생산자가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가능하고 유의미하다. 왜냐하면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기능이나 업무행위의 기록물 덩이도 아이TEM 단위로 미리 슈아낸 상태에서 보존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 종이 기록물의 경우는 편철관리의 방식과 슈아내는 시점의 문제로 인해 아이TEM 단위의 평가가 현실화되기 어렵지만 서버에서 자동 삭제가 가능한 전자기록물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치 개념의 전이를 안 이상 보완해야할 내용들은 한이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전자기록물은 생산시점에서부터 업무활용적 가치와 공공활용적 가치가 내재함과 동시에 발현하므로 적어도 평가 항목이 보존연한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수준의 문제이다. 여기에다 공공활용적 가치 중 정보적 가치와 증거적 가치의 평가방법을 제대로 보완하려면 그 길은 멀고도 멀 수밖에 없다. 또한 전자기록물 관리라고 해서 평가를 모두 생산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적어도 시리즈 혹은 파일 수준에 대한 전문적 평가가 동시에 수행되고, 이러한 상위수준의 평가 내용이 아이TEM수준의 평가 내용보다 우선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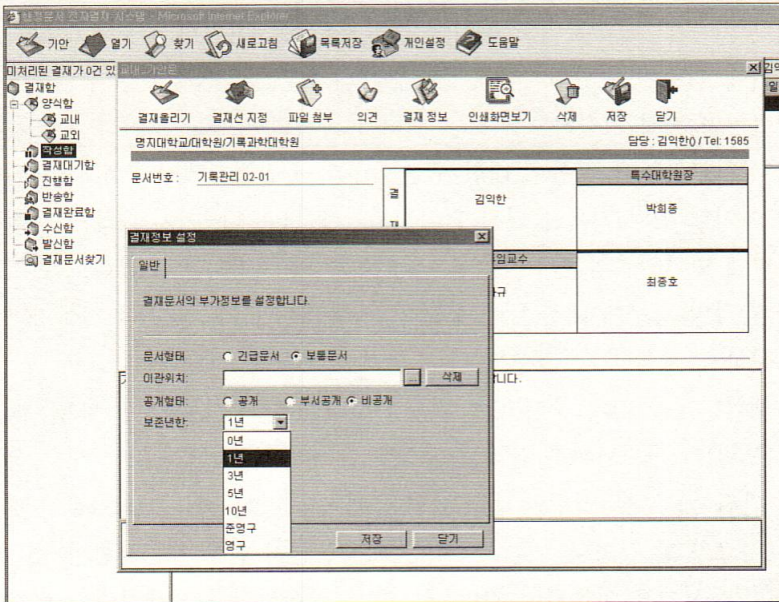
또한 앞서 말한 레코드스케줄이 이를 보조하는 하나의 모듈로 장착되어야 한다. 모두 알다시피 레코드스케줄은 라이프사이클의 응축성을 고려하여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방법론이다. 레코드 오퍼서와 아키비스트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스케줄이 짜인다는 면에서 관리의 동적 성

---

앞서 언급한 간극 줄이기의 첫발을 딛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를 통해 정부의 EDMS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논의를 준비해볼 작정이다.

격 역시 제한적이고 단순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구현하고 있는 방법론이다. 기록물관리 전문가와 생산자는 웹 환경에서의 전자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레코드스케줄의 생성, 수정관리에 동적으로 참여하고 상위단위 평가와 아이템 단위 평가가 상호 보완적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물 생산자가 보존연한을 선택하는 한 번의 행위로 기록물 평가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EDMS 세계의 현 수준은 바로 전자기록관의 방향성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림6> 아이템 단위 평가 기능의 실재



기술과 관련해서는 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일단 My iweb에서는 일체의 기술행위를 배제하고 전자기록물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목록이 생성되도록 시도하였다. 이는 전산 전문가 일반이 갖고 있는 경향으로 본문 텍스트 검색을 포함하는 검색도들이 기술을 대체한다는 생각의 반영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자기록물 포맷이 XML 등으로 표준화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전자기록물에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음성, 화상기록물 등), 검색 속도의 문제, 필요보다 과도한 검색 결과로 인해 오히려 검색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문제 등을 안고 있기 마련이다. 우리에게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런 의미에서 기술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여러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우선 생산단계에서의 기술은 아이템 단위 기술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My iweb이 취하고 있는 방법을 더욱 확대하여 전자문서의 보다 많은 요소들이 자동적으로 기술요소로 전환되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이로써 포괄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기술항목을 최소수준에서 생산자가 직접 기술하도록 하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 상위단위인데, 분류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My iweb에는 아이템 위의 기록물 단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작성함에 단위업무와 단위사안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설정하고 여기에 각각의 업무에 대한 내력과 설명을 생산자와 기록물관리 전문가가 적절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유용할 것이다.

생산단계를 거쳐 문서고로 이동한 전자기록물에 대해서는 파일, 시리즈 및 그 상위단위를 각각 기술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생산시 작성된 단위사안, 단위업무의 내력 설명은 기록물 덩어리에 대한 기술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기록물관리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며, 문서고로 이동하여 파일, 시리즈, 그 상위단위가 생성되면 바로 기록물관리전문가에게 온라인 상으로 기술을 요구하는 신호가 도착하는 방식 등이 고려 가능하다. 또한 시리즈 이상의 단위는 기록물이 계

속 추가로 집적(accrual)되므로 수량, 내용 등의 변화를 적절한 시점에 기술 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적 기술 등의 논리까지 이에 충분히 적용하려면 간극을 메우는 데에만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분류는 My iweb이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나타낸 부분이다. 앞서 말한 대로 생성된 전자기록물은 기본적으로 아이템 단위로만 존재하고 단위사안, 단위업무 없이 바로 처리과 단위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업무행위와 기록물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기록물 생산자가 필요에 따라 단위사안과 단위업무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생성된 단위사안, 단위업무를 기록물관리 전문가가 전체적 조망을 통해 재조정할 수 있도록 분류트리관리 모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분류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간다면 생산자가 업무과정을 먼저 맵으로 작성하고 이 맵을 거쳐 기록물을 생산하게 하는 방안도 모색 가능하다.

전자기록물의 생산과 관련된 어려운 과제가 하나 있다. <그림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My iweb의 메인 메뉴는 게시판, 웹메일, 학사행정, 일반행정, 연구행정, 대학원, 전자결재, EDMS, 경영정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다수의 업무행위 결과가 일반적인 전자기록물의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만 남는 경우가 많음을 말해준다. My iweb은 등록, 수강, 성적, 졸업, 상담 등의 학사 행정의 기본업무, 인사, 예산, 회계, 구매, 시설 등 일반 행정업무의 대부분, 연구과제, 연구업적, 연구비관리 등의 연구행정업무, 기타 대학원 등의 학사행정업무 등의 업무과정을 모두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형태로 종합하였다. 예를 들어 성적관리업무의 결과로 성적표철이 만들어지는 대신 전산데이터베이스 만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남게 되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일정한 양식을 갖는 전자기록물과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

인가의 문제가 하나의 커다란 연구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요즘 이야기하는 데이터셋(data set)의 관리방법론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명지대학교의 My iweb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상당수의 일상적인 업무들은 모두 일반적인 전자기록물로서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EDMS의 문서함/문서고 체계 밖에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이터셋은 앞서 언급한 다출처 기록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류 등의 측면에서 대안적 모색을 요한다. 현재로는 분류의 문제를 해결한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도단위로 구분하여 파일로 만들고 이를 문서고에 자동 이관하게 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생각된다. 장기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일반전자기록물, 전자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가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 8. 무엇을 할 것인가?

명지대학교의 My iweb에서 볼 수 있듯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출발은 꽤 늦었다. 이미 EDMS는 전자기록물의 라이프사이클이 지나는 응축성을 원칙적 수준에서 실현하였고 그것이 ‘돈 값’을 하고 있다. 시공을 초월한 EDMS의 세계는 불편하기 그지없던 업무과정과 데이터 처리를 나름대로 효율화하였고 따라서 명지대학교도 큰 돈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명지대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작년의 시장규모가 1000억을 넘었다고 하니 아깝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문제를 두고도 간극을 줄이지 못해 먼 산을 바라보아야 하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조건 전통적인 기록관리론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비현실적인 자기도취임을 우리는 이미

여러 현실 국면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고 훌쩍 시스템 디자이너로 나서자니 뒷심이 딸리는 것도 현실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실 상황을 읽고 상황단계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두 개의 고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전자기록물관리의 원리적 측면에 관한 실용적 탐구이다. 이 글이 개념과 방법론의 차원에서 약간의 무리를 무릅쓰고 몇 가지 이슈에 대해 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웹 환경 하에서 만들어지는 전자기록물에 관한 실용적 논의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원리적 측면에 대한 실용적 탐구라는 표현에 주목하기를 바란다. 필자가 실용적이라는 표현을 굳이 쓴 것은 필요 이상으로 추상도가 높고 분석적인 탐구는 지금의 우리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막 서구의 이론과 논쟁이 도입되는 시점에서 자칫 빠지기 쉬운 단순한 분석적 탐구는 논쟁을 위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서는 현실 유용성과 관련 없는 방법론적 종속성을 낳게 한다. 이론이나 해석 그 자체가 불필요한 권위가 되어 현실 유용성을 상실하게 하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된다. 원리적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사고하고 논의하되 그것이 항상 실용과 공존, 상호작용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간극을 좁혀 가는 출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고리는 작은 실천영역의 개척이다. EDMS의 도입으로 전통적 기록관리의 이론들이 서서히 변이하고 있다. 우리 역시 이를 감지하여 조금씩 길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원리적 측면에 대한 탐구와 커다란 실천영역은 기술적으로도 동일 선상에 존재하는 문제해결의 고리가 될 수 없다. 두 가지를 다 어설프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명지대학교의 My iweb에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지만 이를 개발하기 시작한 1년 반 전에 이에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진전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진대 정부 전체의 차원은 말할 나위도 없



다. 행자부의 전자문서유통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사업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자기록물관리의 원리론을 들고 나간다면 이는 기록물관리의 현상 분석과 미래 전망을 무시한 처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큰 영역은 현재 확보된 지식과 방법론을 최선을 다해 현실화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보고 원리론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되었을 때 문제를 개선해가려는 전망을 갖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조금 서둘러 작은 실천 영역을 개척해야 함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교회도 좋고 어디 작은 단체도 좋고, 우리의 현 수준에서 감당 가능한 모델을 찾아 전자기록물 관리의 원리론을 적용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실천과 원리론에 대한 실용적 탐구가 결합, 상호작용할 때 멀지 않은 미래에 My iweb도, 전자정부도 기록관리의 새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발전의 방향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몇몇 선구적 연구들과 함께 이 글 역시 반보 정도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Abstract

### EDMS and Life-cycle of Records

Kim, Ik-han

Today the market of EDMS is esteemed more than 100 billions won. It signifies a coming of age of electronic records. The traditional archival theories which are based on the paper records are confronted with a new challenge. In some leading countries of archival studies reorientation of archives management has been tried by a number of distinguished specialists such as Bearman and Hedstrom since 10 years. As a consequence new paradigm of archival theories has been developed. Also in Korea this new paradigm has been introduced by some expert such as Lee, Sang-Min, Sul, Moon-won, Lee, Seung-Eok. However their arguments are too general to offer a concrete clue for new paradigm.

Faced by new age of electronic records, it's important to start a discussion for the reasonable methods of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at once.

The most drastically changed part of record management by the electronic technique is the life-cycle of records. The commonly practiced three-stage life-cycle is to be reduced to the two-stage life-cycle, and the concept of the spatial movement of records is to be changed. It can be also pointed that the public emerges as user from the early creating stage of records beyond time and space.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method of the management features dynamic and cohesive.

The method of appraisal must be also changed and reproduced, so that it can reflect the various levels considering dynamics of the electronic records. Supposedly it will be a core factor that causes the change of methodology in records management with the change of life-cycle theory.

It must be noted that various subjects would be involved in the work of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over time and space and that feedback between them is of important.

Description also tends to be made at the creating stage of records and structured dynamically. It results from the change of life-cycl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continuum. Such trend allows us to start discussions on the assumption that description of both creator and archival professionals act together an important role. Of course, it is linked with the methodology in which most descriptions are made automatically at the early drafting stage of the structure. The meta data is form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should be feedback between areas of automatic description, description of creators and archival professional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description is to develop a suitable way how it is structured.

An alternative must be offered for managing data set. As iweb that is being operated by Myongji university shows, records created in daily business are managed not as electronic records but as date base. This is because they exist outside the repository in the EDMS system. Since data set often has various sources, an alternative for classification needs to be developed. It is now likely that database is filed according to the created year to be transferred automatically to the repository. Over a long-term the total management of

database, electronic records and electronic information will be a topic.

A right direction of new paradigm will be found for both iweb and E-government, when practice and studies of theories are combined and interacted.

